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독서모임의 세대교류 및 사회적 독서 경험 연구*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Young and Old Participating in an Intergenerational Book Club and Social Reading

김지영 (Jiyoung Kim)**

이지연 (Jee Yeon Lee)***

초 록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여러 세대가 교류하는 기회는 적으며 세대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대교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나 독서와 관련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독서모임을 운영하고 참여자들과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세대 간 교류를 할 기회가 적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독서모임 참여 경험을 통해 독서를 중심으로 한 세대교류가 서로에게 도움이 됨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기회가 많아지기를 희망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교류하는 독서모임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른 세대와 함께하는 독서모임이 활성화되고 사회적 독서의 장점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re are few opportunities for different generations to interact, and generational conflicts are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as the number of people aged 65 and over is increasing. Efforts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the young and the old have been made in various fields, but reading-related intergenerational activities are rare.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constructive suggestions by hosting a book club for the young and the old, carrying out individual interviews, and analyzing them. Participants in this study agreed that there were few opportunities for intergenerational exchanges. However, they found that reading-based intergenerational activities were mutually beneficial in the intergenerational book club. The participants hoped the number of such occasions would increase. The study resulted in a few implications for intergenerational book clubs, which should help vitalize the book clubs and accentuate the benefits of social reading.

키워드: 독서모임, 세대교류, 사회적 독서, 질적연구, 독서치료

book club, intergenerational activities, social reading, qualitative research, bibliotherapy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된 연구임.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joyoflearning@yonsei.ac.kr) (제1저자)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lee01@yonsei.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3년 2월 7일 ■ 최초심사일자: 2023년 3월 8일 ■ 게재확정일자: 2023년 3월 13일

■ 정보관리학회지, 40(1), 23-50, 2023. <http://dx.doi.org/10.3743/KOSIM.2023.40.1.023>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의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는 2022년에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70년이 되면 무려 46.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통계청, 2022a).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나이를 중위연령(median age)이라고 하는데, 수명 연장과 출생률 저하로 중위연령은 변화하고 있다(Duffy, 2021). 한국의 중위연령은 1980년에 21.8세, 1990년에 27세, 2000년에 31.8세, 2010년에 37.9세였으며, 2022년에는 45세이다(통계청, 2022b).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지만,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교류하는 기회는 부족한 실정이며(김수연, 원영신, 2021) 세대 갈등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황선재, 2022).

세대교류는 모든 세대가 각자의 지혜, 기술, 경험, 정보, 가치 등을 자신의 발달과 향상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뜻하는데(박혜선, 안태윤, 2012; 이민홍, 2017), 고령화 시대에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가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세대교류 경험을 하는 것이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세대교류 프로그램(intergenerational program)을 통해 다른 세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자존감이 향상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안태윤 외, 2011; Holmes, 2009; Thompson, 2016).

문화체육관광부(2019)에서는 제3차 독서문화진흥계획을 발표하며, 경제 성장과 비교하면

행복 수준 및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였고 개인화로 공동체가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을 언급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최고 수준이라는 지표도 이를 뒷받침한다(OECD, 2021; 2022).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개인적 독서가 아닌 함께 읽는 사회적 독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였다.

독서모임의 장점은 여러 문헌을 통해 제시된 바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2018)의 전국 독서동아리 현황 조사설계 연구에서는 독서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게 되고, 독서를 통한 치유 및 생활의 활력을 얻을 수 있으며, 회원들과 교류하며 친목을 도모할 수 있고, 자기계발과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며, 봉사 같은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등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독서모임 토론을 통해 책을 해석하고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여 세계와 자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며(Sedo, 2003), 학생들은 독서모임을 통해 사회적인 능력을 키우고, 토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Penson, 2011).

이러한 독서모임의 가능성에 주목한 UN과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북클럽(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ook Club, SDG Book Club)을 조직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가지를 독서모임을 하면서 토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영국에서는 모두를 위한 독서모임(Reading groups for everyone)이라는 지원 서비스가 있으며, 웹사이트에 본인의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가까운 곳의 독서모임을 찾아볼 수 있고, 주제별로 선

정된 추천 도서 리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서모임을 권장하고 있다.

다양한 세대가 교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독서를 기반으로 한 세대교류의 기회는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는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독서모임 참여 경험을 통해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회적 독서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절차 및 연구질문

청년 참여자 4인과 노인 참여자 4인을 독서모임 참여자로 모집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의 공간을 대여하여 7회차의 독서모임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참여자 8인을 대상으로 개별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독서모임에 연구자가 운영자가 되어 참여하고, 독서모임을 마친 후, 개별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는 질적 연구이다. 노인과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세대교류 독서모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노인 참여자와 청년 참여자의 참여 경험과 맥락, 시사점을 알기에 적합한 방법을 고려하여 질적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연구질문 1.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독서모임의 세대교류 및 사회적 독서 경험은 어떠한가?
- 연구질문 2. 세대교류 및 사회적 독서의 경험은 노인과 청년이 어떻게 다른가?

2. 이론적 배경

2.1 함께하는 독서

2.1.1 독서모임

독서모임은 주기적으로 만나서 읽은 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관련된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대학생의 독서모임과 관련된 연구는 학업을 이어가면서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라는 대학생 집단의 특수성에 주목하였다. 임성관(2019)은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독서모임을 조직해 4회 운영하고 이 사례를 바탕으로 대학생 독서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서의 독서모임을 다룬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손대익, 장충덕(2018)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대학교의 독서모임 사례를 분석하여 운영 인력과 자원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정규교과와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독서클럽을 읽기 중심 프로그램의 사례로 보았으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면 읽기 중심의 틀을 벗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윤유라와 이은주(2020; 2021)는 대학교의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으로 독서토론 활동을 설계하여 약 2달 동안 독서토론 활동을 진행하고, 독서토론 전후에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서토론의 효과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공적인 기관(공공도서관,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독서모임에 대한 연구는 이은주, 정하영, 윤유라(2020), 신선주(2022) 등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은주, 정하영, 윤유라의 연구

에서는 A구의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된 15개의 독서동아리의 사례를 통해 독서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독서동아리를 운영하는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였다. 오지현 외(2021)는 트레바리라는 유료 독서모임 커뮤니티를 다루었으며, 청년 세대들이 어떤 목적으로 취향이 같은 사람들과 네트워킹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독서회를 다룬 연구도 있는데, 이런 연구들은 한국 근현대사의 위기 상황에서 독서회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사회적으로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독서회의 자료수집을 통하여 독서회의 아카이브 형성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한 연구(장우권, 2021)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독서회가 학내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운동 네트워크로 발전하면서 끼친 영향을 다룬 연구(김태운, 2020), 한국전쟁기 부산으로 피난을 온 고등학생이 만든 독서회를 다룬 연구(이옥부, 2021)가 그 예이다.

Beach와 Yussen(2011)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성 독서모임과 남성 독서모임을 연구하여 독서모임 참여를 도와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두 독서모임의 참여자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류학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일반적인 사람들이 참여하는 독서모임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독서동아리 현황 조사설계 연구에서는 성인 독서동아리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독서모임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나 청년과 노인이 함께하는 독서모임의 비중을 알 수 없고, 다른 세대가 참여하는 독서모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2.1.2 사회적 독서

독서는 문자나 문장을 읽으면서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 저자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 자기 경험을 토대로 글을 분석하고 추론, 판단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주체적인 사고 과정이다(황금숙, 김수경, 2022). 또한 독서는 책이라는 매체에 한정되지 않고 글이나 문장을 읽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며 읽는 행위라 하겠다(김판준, 2011).

독서는 독서의 방향이 개인을 향하는지 나를 둘러싼 사회를 향하는지에 따라 개인적 독서와 사회적 독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적 독서는 독자적으로 책을 읽고 견문을 넓히거나 전문 지식을 쌓거나 여러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독서를 말한다. 이에 반해서 사회적 독서는 다른 사람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럿이 독서토론 및 다양한 독서활동을 하는 상호 작용하면서 책을 읽는 것을 말한다. 천경록(2014)은 사회적 독서가 본인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주목하여, 사회적 독서를 사회변혁적 독서라고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다.

Mason(2014)은 책을 읽는다는 것에는 사회경제적, 기술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이 내재하여 있어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특히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독서 시스템과 사회적 독서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독서를 개인적이면서 정서적인 행위로 보는 기존의 관점을 사회적 독서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였다. 2017년 59.9%에 그쳤던

성인 연평균 독서율을 2023년까지 67.4%로 올리고, 독서동아리 참여율은 2018년 3%에서 2023년까지 3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회적 독서 활성화, 독서의 가치 공유 확산, 포용적 독서복지 실현, 미래 독서생태계 조성 등 네 가지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 전략 아래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50+(신중년) 참여 독서 실현,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강화 등과 같이 세대를 고려한 과제가 있으나 세대별로 따로 적용되는 것이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책을 읽는 문화나 정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2.2 세대교류

세대교류 경험이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긍정적 혜택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조현정, 이병인(2014)은 노인 요양센터 노인과 장애영유아 간의 세대교류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요양센터에 있는 노인과 장애영유아라는 소외계층의 세대교류를 다루어, 취약계층으로 여겨지는 집단이 세대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세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도서관에서도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부모와 손자녀 간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이야기를 읽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 26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바탕으로 조손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한 체계적인 독서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이선화, 이경화, 2015). 이태승, 이지홍, 윤선희(2020)는 연극교육을 통해 노인과 청년 간의 세대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질적 연구를 통해 연극교육 전략을 크게 공존하기와 이해하기, 두 가지로 언급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예시를 제시하였으며 지역사회와 대학교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세대교류 프로그램은 여러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독서를 기반으로 한 세대교류 독서모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세대교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에서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소개하면 <표 1>과 같다.

이러한 세대교류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개인 차원에서 세대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 시민단체, 보육 및 요양 기관, 교육 기관, 정부 등과 같은 단체가 주도해서 운영하는 추세를 보인다. 세대교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대교류의 장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가 세대교류의 지속성과 성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므로, 음악, 스토리텔링, 미술, 공예, 지식 공유 등을 통해 즐길 수 있으면서 노인과 청년 모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 많다.

2.3 선행연구

독서모임에 관한 연구는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다수이며, 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많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의하면, 독서모임(동아리) 참여율은 성인 0.9%, 학생 14.8%로 학생은 성인보다 높은 독서모임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손대익, 장충덕, 2018; 윤유라, 이은주, 2020; 2021; 임성관, 2019), 초등학교(김

〈표 1〉 세대교류 해외 사례

이름	국가	분야	핵심 가치	내용
Nesterly	미국	주거	주거 서비스를 통한 세대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할 방이 있는 노인과 주거할 곳이 필요한 청년을 연결하는 상업적 서비스 • 노인과 청년이 서로를 지지하는 경험을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교류를 늘림
템플 대학교의 세대교류 센터 (Intergenerational Center)	미국	상담, 방문, 교육, 연구	세대교류 서비스 운영, 정책 제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mily Friends: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을 간병인과 멘토가 방문하는 프로그램 • Time Out: 치매가 있는 노인을 대학교 학생이 방문해 대학생과 노인 사이에 우정을 나누고 간병인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세대교류 관련 가이드 자료 제공
제너레이션즈 유나이티드 (Generations United)	미국	프로그램 진행, 교육, 연구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비영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교류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진행 • 세대교류 우수 사례를 창의성, 예술 및 스토리텔링, 다른 세대 간 서로 돕기, 튜터링과 멘토링, 편지 쓰기, 서비스나 프로그램 같이하기 등으로 나누어 소개
케어스 패밀리 (Cares Family)	영국	프로그램 진행, 연구	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사람 간의 의미 있는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절된 시대에 사람 간에 의미 있는 연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3G(3 Generations) Social Clubs: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함께하는 세대교류 프로그램
투게더 프로젝트 (The Together Project)	영국	프로그램 진행	세대교류를 경험하여 외로움을 줄이고 커뮤니티를 강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에게 즐거운 세대 간 우정을 형성할 기회가 있는, 연결되고 포괄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로 함 • 음악(Songs & Smiles), 미술과 공예(Crafting Connections) 등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The Together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어린이와 요양원의 노인을 연결함
캄퐁 (Kampung) 마을	싱가포르	주거, 프로그램 진행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려한 노인 친화적 주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티브 에이징 허브(Active Ageing Hub)는 거주자가 댄스나 요리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면서 상호교류할 기회를 제공함 • 보육시설에서 스토리텔링, 미술 작품 만들기 등의 활동을 어린이와 노인 세대가 함께함
Old People's Home For Teenagers	호주	세대교류 TV 프로그램	노인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세대교류 TV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기 위해 제작된 세대교류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022 AACTA Award에서 수상함

은수, 2015), 중년기 여성(신선주, 2022)과 같이 비슷한 연령층이 참여하는 독서모임을 위주로 수행되었으며, 나이 차이가 있는 노인과 청년 그룹이 함께하는 독서모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의하면 독서모임 참여 경험이 있는 성인은 연간 18.6권의 독서량을 보이고, 비경험자는 4.4권으로 4.2배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독서량의 격차가 벌어졌다. 독서모

임에 관한 연구는 독서의 중요성이나 함께하는 독서의 효과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사회적 독서는 제3차 독서문화진흥계획에서 강조한 핵심 가치이며, 독서모임과 같은 함께하는 독서공동체를 키우고, 개인이 아니라 우리로 관심을 옮겨 타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독서는 사회를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다(천경록, 2014),

여러 세대가 각자의 능력을 개인적 차원의 향상을 위해 쓰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인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세대교류는 여러 연구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드러난 바 있다(안태운 외, 2011; 조현정, 이병인, 2014; Holmes, 2009; Thompson, 2016). 이선화, 이경화(2015)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세대 간 소통을 연구한 바 있으나, 독서를 기반으로 한 세대교류 독서모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세대교류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주거 서비스, 음악, 스토리텔링, 지식 공유, 공예 등이 그 예이다. 정순돌 외(2018)는 다른 연령집단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의 양을 늘리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는데, 독서모임을 통한 세대교류가 제대로 기획되고 운영된다면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세대교류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세대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하고 독서모임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설계

3.1 연구절차

본 연구는 노인 참여자와 청년 참여자가 세대교류하는 독서모임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와 세대교류 독서모임을 통해서 본 사회적 독서의 의미를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독서모임, 세대교류, 독서 및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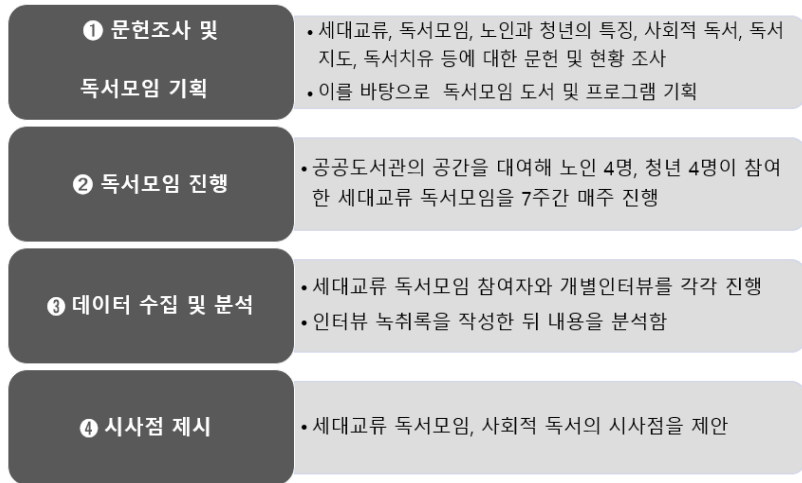
서모임 실태, 사회적 독서, 독서지도, 독서치료, 청년 및 노인 세대의 특징 등을 문헌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독서모임의 도서와 독서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고, 공공도서관에서 7주간 매주 독서모임을 운영하였다.

독서모임을 마친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녹취록을 작성한 후 근거이론적 방법을 적용하여 코딩할 텍스트에 코드를 부여하고 범주화하였다. 오픈코딩을 하면서 중심 개념을 찾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고 자료를 범주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별 인터뷰를 하면서 현장에서 기록한 자료도 활용하였다.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생이 코드북을 중복 코딩하여 코더 간 신뢰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코딩 및 재코딩을 반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세대교류 독서모임과 사회적 독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다.

3.2 연구대상

노인 참여자는 법적으로 규정한 노인 나이인 만 65세 이상인 자를 참여자로 모집하였으며, 청년 참여자는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한 만 19세부터 만 34세인 자를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참여자를 모집하기 전, 관련된 문헌 및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독서모임의 도서와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참여자는 독서모임에 참여하기 전에 독서모임의 도서와 활동에 대해 사전 안내받았으며, 본 독서모임에서 다루는 도서화 진행되는 활동에 관심이 있으면서, 매주 독서모임에서 다루는 책을 읽어올 수 있



〈그림 1〉 연구절차

〈표 2〉 참여자 정보

구분	고유번호	나이	성별	특성
청년	1	만 26세	여	대학생/ 공학 계열 전공
청년	2	만 24세	여	대학생/ 사회과학 계열 전공
청년	3	만 24세	여	대학생/ 사회과학 계열 전공
청년	4	만 29세	여	작가/ 세대 관련 주제로 글을 쓰거나 함
노인	5	만 68세	남	직장인/ 청소년기부터 꾸준히 책을 읽음
노인	6	만 77세	여	직장인/ 동화구연가로 일하였음
노인	7	만 71세	여	전(前) 고등학교 교사/ 은퇴 후 책을 썼으며, 시니어 모델로도 활동함
노인	8	만 65세	남	전(前) 사업가/ 은퇴 후 책을 쓰고 강의함

는 사람으로 모집하였다. 평상시에 독서를 꾸준히 하는 사람, 책을 잘 읽지 않았지만,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본 독서모임의 계기로 독서를 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삶의 교훈을 배우고 발전하는 주제의 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게 되었다. 독서치료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독서모임이었으며,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은 책을 읽고 독서토론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김승환, 2005) 노인 참여자 4명, 청년 참여자 4명으로 독서모임 인원을

정하였다.

참여자의 정보는 〈표 2〉와 같다.

3.3 독서모임 운영

독서모임은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세대교류 독서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하였으며, 독서모임은 공공도서관에서 대여한 공간에서 하였다. 공공도서관 공간대여 비용은 없었으며, 도서관에 독서모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장소를 이용할

수 있었다.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독서모임을 7회 진행하였다.

독서모임에서 다루는 책 및 독서활동은 독서치료 및 독서의 효용을 볼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세대 차이가 나는 참여자가 하는 모임이라는 것도 고려하였다.

독서모임은 다음과 같은 도서와 활동으로 운

영하였다(〈표 3〉 참조).

매주 반복해서 진행한 독서모임 활동은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3.4 연구데이터 수집

7회차로 운영한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세

〈표 3〉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독서모임 도서 및 활동

순서	목표	책	내용	이론적 배경 및 선정 이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한 점을 찾아보고 자존감 회복 • 서로 북돋아 주기 		도서: 『잘했어요 노트』, 나가야 켄 이치 저 • '잘했어요 노트' 쓰는 법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기를 쓰는 과정은 개인, 타인, 상상의 타인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통찰력, 개인적 성장을 도우며 (Hiemstra, 2001), 하루를 돌아보고 잘한 일을 매일 기록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자의 어려움 극복 다룬 책을 통해 살아 가는 힘 키우기 		도서: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이근후 저 • 참여자끼리 토론 • 저자(정신과 전문의)께 감사 카드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치료는 독서를 통해 독자의 심리적인 이슈를 이해하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으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됨(Gunning, Richards, & Prescott, 2011) • 저자의 어려움 극복 과정을 읽고 독서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음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자 특강/토론을 통해 책을 임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읽는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자 정신과 전문의) 강의 •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 질문, 토론 • 저자에게 쓴 감사 카드 읽어드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자가 직접 와서 독자와 소통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독서를 할 수 있음 • 참여자가 궁금한 점을 미리 질문지를 받아서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가 답변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였던 주제에 대해 더 알 수 있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배우기 		도서: 『나는 한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가바시와 시온 저 • 독서모임 운영자의 독서법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쁜 일상에서도 틈새 시간에 짬을 내서 읽고 책을 저술하는 저자의 독서법에 관한 책을 통해 독서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독서를 수월하게 하는 방법을 익힘 • 독서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이 수월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 남기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 생각 나누기 		도서: 『가장 소중한 너』, 린다 클란츠 저 • 『가장 소중한 너』에 소개된 메시지와 그림책에 관한 생각 말하기 • 각자 아끼는 '인생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적 내용의 그림책 메시지가 주인공의 감정에 몰입해 공감하게 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통찰하게 하여 그림책 독서치료는 효과적인(강은주, 2019) • 각자 좋아하는 책에 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독서모임을 더욱 즐길 수 있음(김민영, 정지연, 권선영, 201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참여자의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고 현재를 사는 지혜를 배우기 		도서: 『할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였던 건 아니에요』, 아프 로빈 저 • 노인 참여자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주고 남기고 싶은 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의 내용(할머니의 삶을 손주가 화자가 되어 되돌아봄)과 비슷하게 노인 참여자의 삶을 회고하면서 삶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 책 라이브러리를 진행함 • 사람 책 활동은 참여한 독자와 사람 책 자신에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됨(임성관, 201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인생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생각 나누기 		도서: 『인생에서 너무 늦을 때란 없습니다』,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저 • 늦은 나이에 그림그리기를 시작한 내용을 읽으면서 느낀 점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유명인은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롤모델의 역할을 함(Lockwood & Kunda, 1997) •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 도전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음을 배울 수 있음 • 큰 글자 도서로도 출간되어 노인이 읽기 편함

〈표 4〉 매주 진행한 독서모임 활동

진행 주기	활동명	내용
매주 진행	① 독서모임 퀴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주 학습용 웹 및 모바일 플랫폼 Kahoot!을 이용해 독서모임 시작할 때 독서 퀴즈를 풀 독서모임 선정 도서와 참여자들에 관한 내용을 퀴즈 문제로 다룸 고득점자에게는 상품을 시상하였으며, 책을 미리 신경을 써서 읽어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경청할 수 있도록 유도함 게이미피케이션 방법을 활용함
	② 쓰담쓰담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 주에 소개한 『잘했어요 노트』 책에 제시된 방법을 매일 실천하고 노트에 적음 잘한 일을 하루에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를 적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자기관찰문을 씀 매주 독서모임에서 '잘했어요 노트'에 적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서로 북돋아 주는 '쓰담쓰담 프로젝트'를 진행

대교류 독서모임'을 마치고, 2022년 10월에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시간은 평균적으로 1시간 20분으로, 최소 40분, 최대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일반적으로 청년 참여자보다 노인 참여자들의 인터뷰 시간이 더 길었는데, 노인 참여자들은 다양한 예시를 들거나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개별인터뷰 전에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터뷰 내용은 익명 처리될 것이며, 인터뷰 내용은 녹취가 됨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7주 진행된 독서모임에 대한 매주의 소감, 독서모임 참여 경험, 세대교류 경험 등에 대해 질문하였고, 답변을 바탕으로 다시 질문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표 5〉 인터뷰 질문

대상자	범주	질문 내용
노인, 청년 공통	독서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주~7주, 독서모임 각 주차에 대한 소감 이번 독서모임 참여 전 독서모임 경험 여부 및 느낀 점 세대교류 독서모임 경험 및 의미 세대교류 독서모임 참여 전과 후의 독서의 변화 이번 독서모임을 통한 독서 외의 변화 독서모임 규칙에 관한 생각 세대교류 독서모임이 잘 진행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세대교류 및 세대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독서모임을 하면서 느낀 세대 간의 차이 경험 세대교류 필요성 및 이유 세대교류 경험을 통해 기대하는 것 이번 독서모임을 통한 다른 세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 경험 세대가 교류하는 다른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 유무 주변의 세대교류 프로그램 성공 사례
	삶의 만족도 및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독서모임을 통한 스트레스 및 활력 정도의 변화 독서모임 참여 전 스트레스 정도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노인 참여자	연령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제한으로 인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 및 이에 관한 생각

4. 분석 결과

4.1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독서모임의 세대교류 및 사회적 독서 경험의 의미

많은 참여자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다른 세대의 생각을 들을 기회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가 함께하는 이 독서모임이 특별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참여하였다는 언급이 많았다.

“책을 읽고 저와 다른 관점을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과 함께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청년 참여자 3)

청년 참여자는 세대가 교류하는 독서모임을 ‘다른 세대와 소통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수용하고 싶다’(청년 참여자 4), ‘더 큰 시야로 책을 바라보고 어르신 세대와 소통하고 싶고, 친할머니를 더 이해해보고 싶다’(청년 참여자 3), ‘어르신분들과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며 생각을 확장시키고 싶다’(청년 참여자 2), ‘다양한 깨달음을 얻고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청년 참여자 1)와 같은 동기로 참여하여, 다른 세대와 소통을 통한 큰 시야로 여러 가치관과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하였다. 노인 참여자도 청년세대와 교류하는 독서모임을 통해 젊은이들의 생각을 공유해서 자신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자 하거나 세대 간 소통으로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참여하였다고 말하였다.

청년 참여자는 세대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주체적인 참여자로 왔으나, 노인 참여자는 세대교류하는 독서모임이라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 감사함을 표하고, 세대교류할 기회의 부족과 노인 세대에 대한 오해로 위축되었던 경험을 언급하였다.

“저는 젊은 세대가 우리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운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맨날 꼰대라고 하잖아요. 은퇴한 자들을 사회가 굉장히 비난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청년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니 행복했어요.” (노인 참여자 8)

이 독서모임을 통한 책을 읽는 패턴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평상시에 읽지 않았던 분야의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공학 전공의 대학생인 청년 참여자 1은 순수과학책을 주로 읽었고, 감성적인 책이 잘 와닿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 독서모임을 통해 80대 후반의 정신과 의사인 저자의 책을 읽고, 저자가 독서모임에 와서 독서모임 참여자와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진 후, 평상시에 읽지 않았던 감성적인 책에 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였다. 그림책은 동화구연가로 활동한 적이 있는 노인 참여자 6과 평소 그림책에 관심이 있었던 청년 참여자 1을 제외한 다른 참여자는 성인이 된 이후 그림책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많은 참여자가 독서모임을 통해 그림책을 접하게 되면서 앞으로 그림책을 읽으려 한다고 하여, 독서모임을 통한 관심 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다양한 독서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청

년 참여자 1은 독서모임 운영자로부터 독서 노트 쓰는 법을 배운 후 독서를 한 후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노인 참여자 7은 독서법을 다룬 책을 독서모임에서 읽게 되면서 다양한 독서법을 접하게 되었는데,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바쁜 일정을 쪼개서 15분씩 짬을 내어 책을 읽는다는 것을 읽고 참여자 자신도 수시로 책을 읽으려 노력한다고 하였다.

“요즘에는 그렇게 책을 많이 안 읽었어요, 독서모임 하면서 독서의 필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책을 앉아서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작가를 보니 바쁜 정신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15분 독서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책을 읽으시는 것을 보고 정말 훌륭한 방법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이제 15분 동안 책을 읽으려고 책을 부엌에도 두고, 거실에도 두고, 내 방에도 두고 짬짬이 읽어요.” (노인 참여자 7)

평소에 독서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느끼면서도 제대로 독서를 하지 못했던 노인 참여자 6과 노인 참여자 7은 독서모임을 통해서 독서량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으며 독서 의욕을 높일 수 있었다.

독서모임은 삶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노인 참여자 8), 지루한 생활에 활기를 주기도 한다(청년 참여자 2).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읽는 건 누구나 읽는데 거기서 내용을 정리하고 난 뭘 믿겠다는 게 정리가 돼요, 독서모임은 삶에도 굉장히 밑거름이 됩니다. 삶의 철학이 정립되죠.” (노인 참여자 8)

청년 참여자 4는 본인이 사는 곳과 독서모임의 장소가 먼 편이었고 이 독서모임이 오전에 시작하기 때문에 오전에 일찍 준비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독서모임에 참여하면서 뿌듯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많은 참여자가 독서모임을 통해 스트레스가 감소했으며, 활력을 느꼈다고 하였다. 청년 참여자 3은 주말마다 시험이 많았고, 시험 하루 전날이어도 독서모임에 참여하였는데 독서모임을 갔다 오면 긴장도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많이 내려갔다는 경험을 말하였고, 노인 참여자 8은 독서모임을 하러 오면서 기분이 좋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할 정도로 기운이 났으며 호기심도 생겼다고 하였다.

청년 참여자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 본인의 할머니, 할아버지, 친지 외에는 없는데, 이 연령대의 사람들과 매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노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노인 집단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하였다. 노인 집단을 하나의 큰 집단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청년 참여자도 있었다.

“노인에 대한 시각이 확실히 변화한 것 같은 게, 옛날에는 제가 노인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관심은 많은 편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개개인으로 보지 않고 세대별로 봐서 ‘전쟁을 겪으신 분이래 너무 불쌍해’, 이런 동정 어린 시선으로 봤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한다는 것도 알고 각자 개인의 사정을 좀 더 알게 되니까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청년 참여자 3)

아직은 먼 미래처럼 느껴져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던 노년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삶에 도움이 되는 조언과 교훈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기도 하였다.

노인 참여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독서모임이 세대교류 독서모임이 세대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세대 소통의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 의의를 크게 두는 경향을 보였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범위와 시니어들이 생각하는 범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책을 보더라도 시니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를 하고 공유하면 세대 간에 차이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 참여자 7)

대화할 때 간결하게 핵심을 전하는 청년의 화법을 배우고 싶고, 말을 줄이고 싶다는 노인 참여자도 있었다.

“젊은 친구들이 일목요연하게 짧게 메시지를 잘 전달하더라고요. 잡음이 없단 말이에요. 저런 건 배워야겠다 싶어요.” (노인 참여자 8)

노인과 청년이 함께 하는 독서모임은 세대를 뛰어넘어 친구가 되는 장이 되기도 하였다. 청년 참여자 3은 노인 참여자 6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 참여자는 할머니가 최근에 아프셔서 걱정이 많았고, 미래에 다가올 할머니의 부재에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동화구연가로 활동하였던 노인 참여자 6은 『할머

니가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였던 건 아니에요』를 다루는 독서모임 주차에,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함께 읽으면 좋은 그림책인 『할머니가 남긴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었다. 이 그림책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 할머니의 마지막 일상을 따라가는 내용인데 청년 참여자 3은 이를 보고 위로가 되었다고 하며, 이 노인 참여자와 세대를 넘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저는 ○○님(노인 참여자 6)이 엄청 따뜻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님과 나중에 친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 비슷한 또래와 친구를 많이 만들었어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청년 참여자 3)

참여자는 청년의 경우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노인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같았다. 본 독서모임에서는 성별로 의견이 나뉘기 쉬운 주제의 도서가 아닌 독서를 통해서 살아가는 힘을 얻는 독서치료와 관련된 주제의 도서를 다루었는데, 성별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독서모임의 세대교류 및 사회적 독서 경험의 의미를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4.2 독서모임 참여 노인과 청년의 세대별 경험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는 디지털 기기 활용

〈표 6〉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독서모임의 세대교류 및 사회적 독서 경험

범주	코드	속성	대상 세대
타인 및 다른 세대의 생각을 들을 기회	주체성	주체성을 띠고 참여함	청년 세대
	감사함	청년과 하는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기회에 감사함	노인 세대
	생각의 폭 확장	여러 생각을 들으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짐	노인, 청년 공통
독서의 패턴 변화	새로운 분야 독서	평상시 읽지 않았던 분야의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됨	노인, 청년 공통
	독서법의 다양화	독서 노트 작성, 15분 틈새 시간 독서 등 다양한 독서법을 시도함	
	독서량 증가	더 많은 책을 읽게 됨	독서량이 적은 노인
개인의 건강 상태 및 삶의 질 개선	활기찬 생활	생활에 활기를 주고 뿌듯함을 느낌	청년, 노인 공통
	스트레스 감소	독서모임에 참여하면서 스트레스가 낮아짐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	노인 이해	노인 집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	청년 세대
	노인을 개인화하여 봄	노인 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않고 노인을 개인화해서 볼 수 있음	
	노년기에 대해 생각해 봄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 본인의 노년기에 대해서 생각해 봄	
	교훈을 노인으로부터 얻음	삶에 도움이 되는 교훈을 노인으로부터 얻음	
	세대 차이 해소	세대 차이를 해소할 수 있음	노인 세대
	청년의 장점 배움	청년이 잘하는 것과 좋은 점을 배우고자 함	
세대를 뛰어넘어 친구가 되는 장	우정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해 다른 세대인 사람과 우정을 형성하고 친구가 됨	청년 세대

능력에서 차이를 보였다. Kahoot!이라는 웹 및 모바일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는 퀴즈 플랫폼을 활용하여 퀴즈를 풀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노인과 청년 참여자 모두 휴대폰으로 Kahoot! 퀴즈에 접속하였다. 청년 참여자는 쉽게 퀴즈 화면에 접속하고, 문제 푸는 규칙을 이해하였으나, 노인 참여자의 일부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노인 참여자 안에서도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 차이가 있었고,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참여자도 있었다.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 노인 개개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의 차이가 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Friemel, 2016). 아울러, 독서모임의 청년 참여자가 노인 참여자에게 디지털 기술을 알려주는 독서모임

활동도 고려할 수 있다.

화법에서도 차이점이 드러났는데, 청년 참여자는 할 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간결하게 핵심을 전달하는 화법을 쓰는 반면, 노인 참여자는 말을 길게 하고, 정리되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었다. Ruffman et al.(2010)은 청년 60명과 노인 6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이 청년보다 주제를 벗어나 장황하게 말하는 패턴이 있다고 하였는데, 본 독서모임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보였다.

“제 또래 친구들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르신분들은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풍부하게 얘기하는 것을 대화의 예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매우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 참여자 4)

“젊은 사람들은 아주 똑소리 나게, 확실하게 요점 정리를 해서 전달을 잘하는데 시니어들은 이야기 하다 보면 중언부언 말이 많아져요.” (노인 참여자 7)

이러한 경험을 통해 노인의 대화 패턴을 더 알게 되면서 들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된 청년 참여자가 있었으며, 일목요연하게 말하는 청년의 화법을 배우려고 하는 노인 참여자도 있었다. 노인이 타인의 감정에 둔감하고 자기 중심으로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이야기 자체를 많이 하는 경향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Pushkar et al., 2000) 청년이 노인과의 대화를 꺼리는 이유가 될 수 있어서 노인들이 타인과 이야기할 때 적절한 시간을 배분해서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약해서 일목요연하게 내 생각을 전달하는 법과 같이 청년이 잘하는 주제를 노인에게 가르쳐주는 독서모임 활동도 권장된다.

잘한 일을 기록하는 활동에서도 노인과 청년은 다른 경험을 언급하였다. 잘한 일을 매일 짧게 기록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중에서 선정한 한 가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고 자기관찰문을 작성하는 ‘잘했어요 노트’를 활용해 서로 북돋아 주는 ‘쓰담쓰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청년 참여자는 새벽 공부나 아침 운동 같은 목표를 정해두고 SNS에서 기상 시간을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챌린지를 하는 것처럼, 잘한 일을 기록하는 활동을 부담감 없이 즐기면서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한 것’, ‘식당 점원의 실수로 손해를 보았지만, 화를 내지 않은 것’ 등을 잘했던 일로 기록하며,

일상에서 잘한 일을 수월하게 찾았다. 그리고 잘한 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에도 자신감 있는 말투로 말하였다.

반면, 노인 참여자 중에는 잘한 일을 적는 것이 쑥스럽고 어색하다는 반응이 있었다. 노인 참여자 5는 본인 스스로는 잘했다고 여기지 않지만 선하다고 볼 수 있는 행동(앞에서 청년이 언급한, 식당 점원의 실수에 화를 내지 않고 대처하기와 같은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잘했다고 기록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하였다. 노인 참여자 8은 평상시에 감사일기를 적고 고마운 일을 기록하지만 잘한 일을 쓰는 것은 어색한 느낌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고 잘한 일을 적기가 어려운 날에는 그날의 고마웠던 일을 적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4.3 개선방안 및 시사점

4.3.1 독서모임 진행의 미시적 차원

첫째, 독서모임을 시작하는 시점에, 서로의 의견을 들어 독서모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서모임을 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해보자고 이야기하면, 생각이 잘 안 떠오를 수 있어서 예시를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본 독서모임에서는 ‘존중하고 경청하기, 발언은 공평하게 하기, 비난하지 않기, 시간을 잘 지키기’와 같은 규칙을 예시로 제시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다른 사람 의견 경청하기’를 규칙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지각과 결석하지 않기’, ‘나이, 결혼 여부, 직업 등과 같은 개인 신상은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먼저 묻지 않기’를 서로 토론을 통하여 정

하였다. 독서모임 후 진행된 개별 인터뷰에서 독서모임 규칙을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정했기 때문에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소수의 참여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언 시간을 공평하게 한다'를 규칙으로 넣고, 발언 시간 동안 모래시계를 사용하거나, 큰 화면의 태블릿 등에 발언 시간을 표시하는 화면을 보여줘서 이러한 경우를 막는 것도 필요하다.

본 독서모임에서는 참여자 본인이 원하는 별명으로 호칭하였으며, 별명 뒤에 '님'을 붙여, 가령 노인 참여자가 정한 별명이 '씨니'라면 '씨니 님'으로 불렀는데, 참여자들이 이에 만족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존댓말을 쓰자는 규칙을 만들지는 않았으나,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사용하였다. 청년 참여자 3은 이번 독서모임에서는 존댓말을 쓰자는 규칙을 만들지 않고도 참여자들이 모두 존댓말을 사용해서 좋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이 있을 수 있

으니 '존댓말 사용하기'를 독서모임 규칙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독서모임의 규칙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표 7>과 같다.

둘째, 억지로 하는 독서가 아니라 즐기는 독서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활용한 독서 퀴즈, 각자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독서모임 활동, 저자가 참여하여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활동이 그것이다.

독서모임에서 책에 관한 내용과 참여자에 관한 내용을 퀴즈 문제로 만들어 풀고 고득점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책과 참여자에 관한 내용을 퀴즈로 내면, 독서모임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퀴즈에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메모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독서모임의 집중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는 학습, 독서, 운동 등과 같이 게임이 아닌 분야에 게임의 메커니즘을 적용해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표 7> 독서모임 규칙의 핵심 가치와 예시

번호	핵심 가치	독서모임 규칙 예시
1	경청하고 존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 남이 말하는 중에 끼어들어 말하지 말고 발언이 다 끝났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해주세요. •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세요.
2	약속 지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모임 전에 책을 읽고 오세요. • 독서모임 시간에 늦거나 지각하지 마세요.
3	발언 시간을 공평하게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너무 오래 말하지 않도록 발언 시간에 신경을 써 주세요. • 독서모임의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4	독서모임 참여를 북돋아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이 내성적이라 독서모임에서 활발하게 말하기가 어렵거나 독서모임에서 다루는 책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양해를 구하고 열심히 들어도 좋아요. • 바빠서 책을 못 읽고 왔더라도 참여했다는 것에 칭찬해주세요. • (일정 기간) 출석 100%인 참여자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5	사생활 자유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먼저 개인정보(나이, 직업, 결혼 여부 등)를 공개하기 전에는 묻지 마세요.

적용한 것인데, 게이미피케이션은 학습하는 데 있어 동기부여가 되고 학습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민슬기, 김성훈, 2015).

같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각자 좋아하는 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독서모임 활동도 고려할 수 있다. 독서모임에 선정된 책을 읽으려면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거나, 내가 선정한 책이 아닌 경우에는 독서 의욕이 떨어져 완독을 못할 수도 있다(김민영, 정지연, 권선영, 2016). 그러나 각자 내가 읽은 책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본인이 읽어보고 좋았던 책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에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되지 않는다. 그리고 각자 좋아하는 책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듣다 보면 나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책을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독서량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독서모임에서는 각자 많이 아끼는 소중한 책, 즉 '인생 책'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인생 책을 소개하였으며, 좋은 책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유용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독서모임에서 저자와의 만남을 기획하는 것도 즐기는 독서를 하도록 이끌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가 독서모임 장소에 와서 독서모임 참여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은 독서모임 참여자에게 독서는 지루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독서치료의 측면도 경험할 수 있었다. 단순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을 다시 듣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궁금했던 점을 미리 질문지를 만들어 저자에게 전하고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참여자와 생각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하여, 책을 읽어서는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알 수 있었다. 저자가 와서 토론한 것에 대해 노인 참여자 7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책을 쓰신 훌륭한 작가님을 뵈려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닌데 뵈려고 하는 것이 감동이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 생전에 아주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커다란 이벤트였어요.”
(노인 참여자 7)

셋째, 책을 물리적인 종이책으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포맷과 미디어로 된 것으로 확대 볼 필요가 있다(Fuller & Sedo, 2014). 전자책을 읽는 독서모임이 그 예이다. 전자책의 경우, 구독형 독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었는데 이 서비스의 이용자 간 독서모임을 통해 좋은 책을 추천하고, 함께 읽고 토론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책에 소개된 장소를 찾아가서 여행과 겸한 독서모임을 할 수도 있고, 영화 관련 책을 읽고 실제로 영화를 함께 보고, 그림 관련 책을 읽고 그림을 감상하러 가는 식으로 책의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연계할 수도 있다.

노인 참여자와 청년 참여자가 서로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사람 책(휴먼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일방적으로 노인 참여자가 청년 참여자에게 살면서 터득한 것이나 본인의 전문 분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유용하다. 사람 책 라이브러리는 책이 아닌 사람을 만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말하는데, 노인 세대는 삶의 지혜나 본인의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청년 세대는 본인이 잘하는 특화 분야를 노인 세대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소

통을 할 수 있다(임성관, 조미아, 2018). 이것은 Beach와 Yussen(2011)이 독서모임 참여를 돕는 방법으로 독서모임에서 스노보드에 관한 책을 읽으며 참여자 중에 스노보드 전문가가 있으면 그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에게 그 주제에 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식으로 참여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본 독서모임에서는 사람 책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노인 참여자가 본인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젊은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세 가지를 준비해 오도록 해서 사람 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참여자들은 만족하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넷째, 노인과 청년이 독서모임을 함께할 때 어떻게 해야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참고할 매뉴얼이 필요하다.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형태의 독서모임은 흔하지 않으며, 노인과 청년 세대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참고할 매뉴얼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노인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노화로 인해 시각, 공간 능력은 급격히 쇠퇴하지만, 어휘력과 언어처리 능력은 상대적으로 보존이 잘 되는데(이혜원 외, 2012), 매뉴얼을 만들 때 이러한 노인의 인지 변화 특징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세대교류 독서모임에서 어떤 책을 읽을지에 대한 고민을 덜어줄 추천 도서 목록 역시 필요하다. 미국의 San José Public Library(2023)에서는 사서가 추천하는 세대교류 독서모임의 권장도서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팔라시오의 『원더』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사람을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됴됨이를 보는 것과

따돌림을 당하는 경험이 주는 영향과 같은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라고 제안하는 식으로, 서지정보와 그 책에 대한 설명이 함께 있다. 청년 참여자 3과 노인 참여자 7은 세대교류 독서모임이 잘 되려면 책 선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독서모임에서는 책 선정이 중요해요. 이번에는 일단 책 선정이 잘 됐어요. 부담 없이 술술 읽힐 수 있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책들이 선정됐어요.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했던 독서모임에서는 책 선정을 너무 한 분야의 깊이 있는 과학 서적 같은 것으로 해서 ‘지루해, 재미없어’ 이랬어요.” (노인 참여자 7)

노화에 따라 시각 기능이 감퇴하는 것은 읽을 수 있는 폭에 영향을 주어서 읽기 속도가 느려지므로(김선경, 이해원, 2015), 노인에게 적절한 글자 크기로 된 자료를 제공하면 효율적으로 읽는 것이 가능하다(육근해, 2009; 이고은, 이해원, 2011; Akutsu et al., 1991). 따라서 큰 글자 도서 중에서 추천도서 목록을 만드는 것도 요구되며, 더 많은 큰 글자 도서가 출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독서전문가가 독서모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나 독서모임의 참여자가 교육에 참여하여 독서모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도서관이 장소를 대여해서 하는 독서모임이라면 도서관의 사서가 독서모임에 도움을 주는 방식을, 그리고 도서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행되는 독서모임이라면 사서가 방문해서 도움을 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독서모임 참여자가

배울 수 있는 독서모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여자가 독서모임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4.3.2 사회적 독서의 거시적 차원

첫 번째로, 노인과 청년 간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노인과 청년이 세대교류를 하는 기회가 경로당, 요양원과 같은 장소에서 청년이 자원봉사를 가서 노인을 도와주는 성격의 프로그램이라면 노인이 위축되기 쉽다. 노인과 청년이 세대교류를 하는 장소가 교육 기관, 도서관 등과 같이 모든 세대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환경이어야 한다. 그리고 한쪽이 도움을 주고 다른 한쪽이 도움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원활하게 세대교류가 진행될 수 있다.

둘째, 노인과 청년이 참여하는 독서모임 플랫폼이 필요하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사람들과 독서모임을 할 수 있는지 서로 정보와 관심사 등을 교환해야 세대교류 독서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다. 청년 참여자 3은 사회과학 전공 대학생으로 본인과 전혀 다른 공학 관련 배경이 있는 노인과 교류하고 싶다는 바람을 말하였는데,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다른 세대와 교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수월하게 독서모임 참여자를 모집하고 진행할 수 있다. 각자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노인이 참여하는 독서모임과 청년이 참여하는 독서모임이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만날 기회를 가지는 것도 세대교류 독서모임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면 수월할 수 있다. 황금숙(2020)은 공적 영역에서의 독서와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독서모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며, 다른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독서모임에 대한 메뉴도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야 한다.

셋째, 세대별로 구분된 독서 정책 프레임 변화가 요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책을 가까이 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20년 청소년 책의 해, 2021년 60+ 책의 해, 2022년 청년 책의 해로 지정하고 각 세대를 위한 독서 환경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다른 세대를 통합하여 서로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세대가 독서를 함께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독서 정책 프레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다른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세대와 접하는 경험을 늘리고, 이를 통해 스스로 세대교류를 하는 경험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참여자가 본 독서모임을 통해 세대를 넘어 교류하면서 좋았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음에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였다.

노인 참여자 7은 글을 쓰거나 동영상을 만들어 제출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받는 식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만 70세라는 연령 제한으로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는데, 지자체, 문화기관, 교육단체 등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하지 않아야 더 많은 세대가 교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읽는 개인적 독서에서 벗어나 여럿이 함께 읽는 사회적 독서로 이어지고,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책을 중심에 두고 교류하려면,

정부, 학교, 도서관, 출판업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독서와 세대교류를 지원할 정책,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를 도울 교육을 하고, 도서관은 사회적 독서 문화 형성 및 세대교류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독서모임을 지원하여 이바지할 수 있다. 출판업계는 사회적 독서나 세대교류와 관련된 도서나 미디어 저작물을 생산하면서 협업을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교류하는 기회는 부족하며, 세대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독서문화진흥계획에서는 함께 책을 읽는 사회적 독서를 강조하였고, 개인적 독서에서 벗어나 여럿이 책을 읽는 독서 풍토가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였으나 독서모임 참여율은 성인의 경우 0.9%로 저조한 편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이러한 상황에서 세대 간의 이해를 넓히고 사회적 독서를 통해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세대교류 독서모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는 노인 4명과 청년 4명이 7회에 걸쳐 공공도서관에서 대역한 공간에서 독서모임을 진행하고, 개별인터뷰를 통해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독서모임의 세대교류 및 사회적 독서 경험은 어떠한지와 세대교류 및 사회적 독서의 경험은 노인과 청년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과 청년이 함께 하는 독서모임의 세대교류와 사회적 독서는 노인 참여자와 청년 참여자 모두에게 여러 생각을 들으면서 생각의 폭을 확장할 기회였으며 노인 참여자들은 청년과 함께 독서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함을 표현하였고, 청년 참여자들은 주체성을 나타내며 참여하였다. 노인과 청년 참여자 모두 새로운 분야의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양한 독서법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독서량이 적었던 노인에게서는 더 많은 책을 읽게 하는 동기로 작용하여 독서의 패턴이 변화함을 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활기찬 생활을 하고 참여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도 하여 독서모임이 개인의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노인과 청년 참여자들은 독서모임을 함께 하면서 다른 세대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나이 차이가 크게 날 경우에도 친구가 되는 장이 독서모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노인과 청년은 독서모임을 하면서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이나 화법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잘한 일을 기록하는 독서활동에서도 노인 참여자와 청년 참여자 간의 다른 반응을 볼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세대 간 교류를 할 기회가 적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독서모임 참여 경험을 통해 독서를 중심으로 한 세대교류가 서로에게 도움이 됨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회가 많아지기를 희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시적인 차원과 거시적인 차원에서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는데,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독서모임의 규칙 만들기, 즐기는 독서를 위한 전략, 읽는 독서

에서 벗어난 다양한 활동, 세대교류 독서모임의 매뉴얼과 추천도서 목록 마련, 독서전문가의 도움 및 독서모임 참여자 교육이 필요하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노인과 청년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설정, 세대교류 독서모임의 플랫폼 마련, 세대별로 구분된 독서 정책 프레임의 변화,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정부, 학교, 도서관, 출판업계의 협력이 요구된다.

세대 차이가 나는 그룹이 교류하려는 노력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세대가 교류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세대교류를 하는 자리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즉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내용이었다. 독서모임은 도서선정과 독서활동 구성이 잘 된다면 내

용 면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독서모임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과 청년이 함께 독서모임을 진행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세대 간의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사회적 독서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로 소통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노인과 청년이 독서모임에 함께 참여하는 경험을 다룬 본 연구를 통해 여러 세대가 함께 독서모임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루지 못한 청소년이나 중년층과 같은 다른 세대가 참여하는 연구,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확산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독서모임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참여자와 진행 포맷에 관한 후속 연구를 과제로 남겨둔다.

참 고 문 헌

- 강은주 (2019). 1999-2018 년간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치료의 국내 연구동향. *독서치료연구*, 11(2), 1-25. <https://doi.org/10.35398/job.2019.11.2.1>
- 김민영, 정지연, 권선영 (2016). *생각 정리 공부법*. 서울: 학교도서관저널.
- 김선경, 이혜원 (2015). 컴퓨터 환경에서 한글 글자 크기가 청년과 노인의 읽기 속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27(3), 367-384. <https://doi.org/10.22172/cogbio.2015.27.3.003>
- 김수연, 원영신 (2021). 유소년부터 노년까지, 체조페스티벌 참여에 따른 세대교류 경험 연구. *한국노년학*, 41(5), 639-666. <https://doi.org/10.31888/JKGS.2021.41.5.639>
- 김승환 (2005).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독서회 운영 현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3), 65-83.
- 김은수 (2015). 독서탐구공동체 활동을 통한 어린이 철학수업이 자기존중감 및 인성교육에 미치는 효과: 자기책임을 주제로. *도덕윤리과교육*, (46), 281-307. <https://doi.org/10.18338/kojme.2015..46.281>

- 김태운 (2020). 북한 간부이력서를 통해 본 일제 말 사회주의 운동과 네트워크의 연속성: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독서회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2, 153-183.
- 김관준 (2011). 저자 프로파일링 기법을 이용한 국내 독서 연구 영역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4), 21-4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1.22.4.021>
- 문화체육관광부 (2018). 전국독서동아리 현황조사 설계 연구.
출처: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741&pDataCD=0406000000&pType=04
- 문화체육관광부 (2019).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9-2023).
출처: https://www.mcst.go.kr/attachFiles/viewer/skin/doc.html?fn=20190429093321914285795548_TCS_SCHMNG20190502094707896177.hwp&rs=/attachFiles/viewer/result/202303/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출처: https://www.mcst.go.kr/attachFiles/viewer/skin/doc.html?fn=20190429093321914285795548_TCS_SCHMNG20190502094707896177.hwp&rs=/attachFiles/viewer/result/202303/
- 민슬기, 김성훈 (2015). 학습자 몰입 증진을 위한 스마트 e-러닝의 게이미피케이션 적용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4), 177-187.
- 박혜선, 안태운 (2012). 세대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및 세대교류 공간에 관한 연구: 경기도 복지관을 중심으로. *의료·복지 건축 (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8(2), 65-76.
<https://doi.org/10.15682/JKIHA.2012.18.2.065>
- 손대익, 장충덕 (2018). 대학의 독서 교육 현황과 과제: 충북대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52), 113-135.
- 신선주 (2022). 중년기 여성의 공공도서관 독서동아리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 안태운, 서해정, 김명일, 박혜선 (2011). 세대교류를 위한 [3세대 이음터] 운영모델 개발.
출처: <https://www.gwff.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boardNo=183&page=46&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26#>
- 오지현, 차영화, 김서현, 박해란, 최섯별 (2021). 수평적 취향공동체를 통한 새로운 구별짓기: 독서모임 커뮤니티 <트레바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9(2), 183-244.
<https://doi.org/10.17328/kjcs.2021.29.2.005>
- 육근해 (2009). 노인용 큰글자도서 개발을 위한 적정문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171-192.
<https://doi.org/10.4275/KSLIS.2009.43.2.171>
- 윤유라, 이은주 (2020). 권장도서목록을 활용한 독서토론활동의 설계: D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325-350. <https://doi.org/10.16981/KLISS.51.3.202009.325>
- 윤유라, 이은주 (2021). 대학생의 핵심역량 양성을 위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독서토론활동의

- 가능성: D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방법논총, 6(1), 65-92.
<https://doi.org/10.21487/jrm.2021.3.6.1.65>
- 이고은, 이혜원 (2011). 철자 정보 산출에서 노화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23(4), 549-564.
<https://doi.org/10.22172/cogbio.2011.23.4.005>
- 이민홍 (2017). 한국사회의 세대공존을 위한 세대교류의 이론적 논의. 한국노년학연구, 26(2), 107-122.
- 이선화, 이경화 (2015). 조손세대 간의 교류를 위한 조부모의 손자녀 독서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Global Creative Leader, 5, 19-44.
- 이옥부 (2021). 부산 피난학교 시절 어느 고등학생의 일상과 독서모임. 한국교육사학, 43(1), 141-165.
- 이은주, 정하영, 윤유라 (2020). 독서동아리 운영현황과 과제: 지자체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2), 79-101. <https://doi.org/10.16981/kliss.51.2.202006.79>
- 이태승, 이지홍, 윤선희 (2020). 노년·청년 간 세대교류를 위한 연극교육 연구: 지역사회·대학교 협력모델 제안. 연극예술치료연구, 12(1), 166-239.
<https://doi.org/10.22684/JDAT.2020.12-1.0.166>
- 이혜원, 김선경, 이고은, 정유진, 박지윤 (2012). 연령에 따른 인지 변화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24(2), 127-148. <https://doi.org/10.22172/COGBIO.2012.24.2.003>
- 임성관 (2017). 사람 책 참여자의 체험 현상 분석 연구: 경기도교육청의 사람 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153-176.
- 임성관 (2019). 문헌정보학과 대학생을 위한 독서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2), 261-283.
- 임성관, 조미아 (2018).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도서관 적용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345-368.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1.345>
- 장우권 (2021). 일제강점기의 광주학생독립운동 독서회 아카이빙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593-618. <https://doi.org/10.4275/kslis.2021.55.1.593>
- 조현정, 이병인 (2014). 노인요양센터 노인과 장애영유아 세대 간 교류에 관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4(3), 167-188.
- 천경록 (2014). 사회적 독서와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고찰. 새국어교육, 101, 7-35.
<https://doi.org/10.15734/koed..101.201412.7>
- 통계청 (2022a).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출처: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600&bid=207&act=view&list_no=420361
- 통계청 (2022b).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출처: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ByNumber/PopulationByNumberMain.do?mb=Y&menuId=M_1_4&themaId=D05

- 황금숙 (2020). 스마트 환경에서의 독서문화 진흥 방안에 관한 연구: '독서' 관련 어플리케이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1), 145-177.
<https://doi.org/10.16981/kliss.51.1.202003.145>
- 황금숙, 김수경 (2022). 독서지도의 이론과 실제. 대구: 태일사.
- 황선재 (2022).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 *사회과학연구*, 33(2), 149-172.
<https://doi.org/10.16881/jss.2022.04.33.2.149>
- Akutsu, H., Legge, G. E., Ross, J. A., & Schuebel, K. J. (1991). Psychophysics of reading – X. Effects of age-related changes in vision. *Journal of Gerontology*, 46(6), 325-331.
<https://doi.org/10.1093/geronj/46.6.P325>
- Beach, R. & Yussen, S. (2011). Practices of productive adult book clubs.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55(2), 121-131. <https://doi.org/10.1002/JAAL.00015>
- Duffy, B. (2021). *Generations: Does When You're Born Shape Who You Are?*. London: Atlantic Books.
- Friemel, T. N. (2016). The digital divide has grown old: Determinants of a digital divide among seniors. *New media & society*, 18(2), 313-331. <https://doi.org/10.1177/1461444814538648>
- Fuller, D. & Sedo, D. R. (2014). And Then We Went to the Brewery: Reading as a Social Activity in a Digital Era. *World Literature Today*, 88(3), 14-18.
<https://doi.org/10.7588/worllitetoda.88.3-4.0014>
- Gunning, M., Richards, C., & Prescott, N. (2011). Reading for wellbeing: The journal of the health visitors' association. *Community Practitioner*, 84(4), 40-41.
- Hiemstra, R. (2001). Uses and benefits of journal writing.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2001(90), 19. <https://doi.org/10.1002/ace.17>
- Holmes, C. L. (2009). An intergenerational program with benefit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7(2), 113-119. <https://doi.org/10.1007/s10643-009-0329-9>
- Lockwood, P. & Kunda, Z. (1997). Superstars and me: Predicting the impact of role models on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1), 91.
<https://doi.org/10.1037/0022-3514.73.1.91>
- Mason D. (2014). Social Reading: Platforms, Applications, Clouds and Tags, *Online Information Review*, 38(6), 838-839. <https://doi.org/10.1108/OIR-08-2014-0186>
- OECD (2021). *Health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22). *Suicide rates*. Available: <https://data.oecd.org/healthstat/suicide-rates.htm>
- Penson, W. (2011). Using book clubs in higher education. *Hoekten International: A Journal of Medical Humanities*.

- Pushkar, D., Basevitz, P., Arbuckle, T., Nohara-LeClair, M., Lapidus, S., & Peled, M. (2000). Social behavior and off-target verbosity in elderly people. *Psychology and Aging*, 15(2), 361-374. <https://doi.org/10.1037//0882-7974.15.2.361>
- Ruffman, T., Murray, J., Halberstadt, J., & Taumoepeau, M. (2010). Verbosity and emotion recognition in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25(2), 492-497. <https://doi.org/10.1037/a0018247>
- San José Public Library (2023). Summer Learning: Intergenerational Book Club. Available: <https://sjpl.bibliocommons.com/list/share/1591956719/1633216079>
- Sedo, D. R. (2003). Readers in reading groups: an online survey of face-to-face and virtual book clubs. *Converge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to New Media Technologies*, 9(66), 66-90. <https://doi.org/10.1177/135485650300900105>
- Thompson Jr, E. H. & Weaver, A. J. (2016). Making connections: The legacy of an intergenerational program. *The Gerontologist*, 56(5), 909-918. <https://doi.org/10.1093/geront/gnv064>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Ahn, Taeyoon, Seo, Haejung, Kim Myungil, & Park, Hae-Sun (2011). Development of [3rd generation joint site] operation model for generational exchange. Available: <https://www.gwff.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boardNo=183&page=46&searchCategory=&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26>
- Chang, Woo Kwon (2021). A study on the archiving of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reading club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593-618. <https://doi.org/10.4275/kslis.2021.55.1.593>
- Cheon, Gywong-Rok (2014). Transformational reading and critical literacy. *Korean Education*, 101, 7-35. <https://doi.org/10.15734/koed..101.201412.7>
- Cho, Hyun Jung & Lee, Byoung In (2014). A narrative inquiry on the intergenerational relations between younge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elderly in the senior care centers of teachers in the child care centers for younger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4(3), 167-188.
- Hoang, Gum-Sook & Kim, Soo-Kyoung (2022). *Theory and Practice of Reading Guidance*. Daegu: Taeilsa.
- Hoang, Gum-Sook (2020). A study on the promotion of reading culture according to analysis

- of the application on the 'Reading'.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1), 145-177. <https://doi.org/10.16981/kliss.51.1.202003.145>
- Hwang, Sun-Jae (2022). Population aging and generational conflict: intergenerational equity over resource allocation. *Journal of Social Science*, 33(2), 149-172. <https://doi.org/10.16881/jss.2022.04.33.2.149>
- Kang, Grace Eunjoo (2019). Research trends of bibliotherapy with therapeutic picture books during 1999-2018 in South Korea. *Korean Association Of Bibliotherapy. Korean Association Of Bibliotherapy*, 11(2), 1-25. <https://doi.org/10.35398/job.2019.11.2.1>
- Kim, Eunsoo (2015). Effects of learning of philosophy for children through the program of reading inquiry community on self-esteem & character education: focused on self-responsibility. *Journal of Moral & Ethics Education*, (46), 281-307. <https://doi.org/10.18338/kojme.2015..46.281>
- Kim, Minyoung, Jung, Jiyeon, & Kwon, Sunyoung (2016). *How to Organize Your Thoughts*. Seoul: School Library Journal.
- Kim, Pan-Jun (2011). Domain analysis of reading research in Korea using author profiling.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4), 21-4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1.22.4.021>
- Kim, Seung-hoan (2005). A study of public library of the reading circle manage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3), 65-83.
- Kim, Sue-Yeon & Won, Young-Shin (2021).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 through participation in exercise festival: experience of youth through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41(5), 639-666. <https://doi.org/10.31888/JKGS.2021.41.5.639>
- Kim, Sunkyong & Lee, Hye-Won (2015). The effect of hangul print size on reading speed of young and older adults in a computer environment. *The Korean Journal of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27(3), 367-384. <https://doi.org/10.22172/cogbio.2015.27.3.003>
- Kim, Tae-yoon (2020). The socialist movements of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continuity of networks as viewed through the résumés of North Korean officials.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72, 153-183.
- Lee, Eun-Ju, Jeong, Ha Young, & Youn, You-Ra (2020). Current status and strategies for reading clubs: the case of local government suppor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2), 79-101. <https://doi.org/10.16981/kliss.51.2.202006.79>
- Lee, Hye-Won, Kim, Sunkyong, Lee, Ko Eun, Chung, Yoojin, & Park, Jiyun (2012). The age-related changes in cognitive function. *Korean Journal of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 24(2), 127-148. <https://doi.org/10.22172/COGBIO.2012.24.2.003>
- Lee, Ko Eun & Lee, Hye-won (2011). The effect of aging on retrieval of orthographic knowledge. *Korean Journal of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23(4), 549-564. <https://doi.org/10.22172/cogbio.2011.23.4.005>
- Lee, Minhong (2017). Theoretical discussion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for intergenerational coexistence in Kore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6(2), 107-122.
- Lee, Okboo (2021). Daily life and Reading circle of a high school student at Busan refuge school.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Education*, 43(1), 141-165.
- Lee, Sun hwa & Lee, Kyung hwa (2015). Actuality and activation methods of grandparent generation's reading education to grandchildren for intergenerational intercourse. *Global Creative Leader*, 5, 19-44.
- Lee, Tae Seung, Lee, Ji Hong, & Yoon, Sun Hee (2020). A study on drama-theatre education for generation exchange between the elderly and young people: proposal of community/university cooperation model. *Journal of Drama Art Therapy*, 12-1(0), 166-239. <https://doi.org/10.22684/JDAT.2020.12-1.0.166>
- Lim, Seong-Gwan & Cho, Mi-ah (2018). A study on application case analysis of human book programs to the library: focused on the case of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1), 345-368.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1.345>
- Lim, Seong-Gwan (2017). A study or analysis of the phenomenal experiences with human book: focusing on the human book program at the G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3), 153-176.
- Lim, Seong-Gwan (2019). 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student reading clubs for the university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2), 261-283.
- Min, Seul Gi & Kim, Sunghoon (2015). A study on utilizing gamification of smart e-learning to improve learners flow.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1(4), 177-187.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8).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Reading Clubs in Korea. Available: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741&pDataCD=0406000000&pType=04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The 3rd Master Plan for the Promotion of Reading (2019-2023). Available:

- https://www.mcst.go.kr/attachFiles/viewer/skin/doc.html?fn=20190429093321914285795548_TCS_SCHMNG20190502094707896177.hwp&rs=/attachFiles/viewer/result/202303/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2). 2021 Research Report on Reading Status in Korea. Available:
https://www.mcst.go.kr/attachFiles/viewer/skin/doc.html?fn=20190429093321914285795548_TCS_SCHMNG20190502094707896177.hwp&rs=/attachFiles/viewer/result/202303/
- Oh, Jihyun, Cha, YoungHwa, Kim, Seo-hyeon, Park, Haeran, & Choi, SetByol (2021). A new distinction through horizontal taste communities bases on book club community “Trevari”. *The Kore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 29(2), 183-244.
<https://doi.org/10.17328/kjcs.2021.29.2.005>
- Park, Hae-Sun & Ahn, Taeyoon (2012). Intergenerational programs and spaces for the improvement of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s in integrated welfare facilities in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18(2), 65-76.
<https://doi.org/10.15682/JKIHA.2012.18.2.065>
- Shin, Seon Ju (2022).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Middle-aged Women Participating in the Public Library Book Club Program.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Sohn, Daeik & Jang, Chung-Deok (2018). Current status and tasks of reading education in universities. *Urimal*, (52), 113-135.
- Statistics Korea (2022a). Population Status and Prospects of the World and Korea. Available: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600&bid=207&act=view&list_no=420361
- Statistics Korea (2022b). The Republic of Korea in Terms of Population. Available: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ByNumber/PopulationByNumberMain.do?mb=Y&menuId=M_1_4&themeId=D05
- Youk, Keun Hae (2009). A study on the proper large print for the development of books for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2), 171-192. <https://doi.org/10.4275/KSLIS.2009.43.2.171>
- Youn, You-Ra & Lee, Eun Ju (2020). Design of reading and discussion activities using recommended book list: the case of D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3), 325-350. <https://doi.org/10.16981/KLISS.51.3.202009.325>
- Youn, You-Ra & Lee, Eun Ju (2021). Possibility of reading and discussion activities as one of the extracurricular programs: the case of D university. *Journal of Research Methodology*, 6(1), 65-92. <https://doi.org/10.21487/jrm.2021.3.6.1.65>